

광남일보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제12기 원우 친교의 밤' 성료

“원우간 소통과 화합 다진 어울림 한마당”

70여명 참석...조별 장기자랑·가수 공연 등 친목 도모 푸짐한 경품 추첨...11월까지 분야별 최고 강사진 강의

광남일보 제12기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 친교의 밤' 행사가 지난 25일 원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동구 호텔아트하이브 대회의장에서 열렸다. 원우 친교의 밤은 아카데미 회원들 간 친목과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원우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전용준 광남일보 대표이사·회장, 전용태 광남일보 상임부회장과 임태근 제12기 아카데미 원우회장, 하승업 제11기 아카데미 동창회장, 이재수 제10기 동창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기 원우회 회칙 제정과 사업 설명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저녁 식사와 기념사진 촬영에 이어 전문MC 사회로 진행된 원우친교의 밤 행사는 레크리에이

션, 초청가수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각 조별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대회에서는 원우들이 단체복을 맞춰 입은 무대 공연과 악기 연주 등을 선보이는 등 숨겨둔 끼와 장기를 뽐내는 시간이 펼쳐졌다. 이어진 경품 추첨에서는 원우들에게 백화점 상품권, 선봉기, 밥솥, 가습기, 건강식품 등이 제공됐으며, 참석한 원우 모두에게 기념품이 전달됐다. 분위기를 한껏 고조된 원우들은 이야기 꽃을 나누며 친목의 시간을 이어갔다. 임태근 원우회장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 덕분에 회원들이 돈독하고 끈끈한 정을 나눴고, 모



광남일보 제12기 글로벌리더아카데미 '원우 친교의 밤' 행사가 최근 동구 호텔아트하이브 대회의장에서 원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두가 하나가 됐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가족처럼 다”고 말했다. 원우 친교의 밤은 11월 말까지 강의 열릴 예정인 원우 친교의 밤 행사가 최근 동구 호텔아트하이브 대회의장에서 원우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원우 친교의 밤은 11월 말까지 강의 열릴 예정이다. 임명진 기자 looks@gwangnam.co.kr

PEOPLE

2024년 4월 29일 월요일

황연정·소인자씨, 신안 K김밥월드컵서 '이마트24 특별상'



신안뽕이튀김밥 호평

“신안지역의 우수한 농수산물 이용해 만든 김밥이 이처럼 좋은 평을 받게 돼 그동안 고생이 말끔히 씻어지는 기분입니다.” 지난 27일 신안군 주최로 신안군 자은면 무지암파크에서 열린 세계김밥페스타 'K-김밥월드컵'에서 '이마트24 특별상'을 수상한 황연정·소인자씨가 수상 소감을 밝혔다. 어머니와 함께 출전한 황연정씨는 “지난해 가을 신안에서 첫 김밥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늦게 들어 참가를 못한 것이 아쉬워 그 이후 2회 대회 참가를 준비했다”며 “지난 3월

중순 갑자기 김밥대회 개최를 앞당긴다는 소식을 처음 듣고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날 신안 시금치와 톳을 활용한 '신안뽕이튀김밥'을 선보였다. 창의성과 상품화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이 외에 신안의 대파와 닭을 꼬치구이로 만든 '파닭피망'과 '대파기름 라면'을 김밥에 곁들여 호평을 받았다.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김밥 등 음식을 연구, 정신과 신체 건강의 회복을 추구하는 좋은 음식 만들기에 천착하고 있는 황씨는 이번 수상을 기반으로 더욱 활발한 음식 연구와 상품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황씨는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세계에 내놓고 싶다”며 “개인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조를 받아 세계에 진출하는 게 꿈”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12일 전국의 참가자들이 예선전을 거쳐 20팀이 본선에 올라 이날 기량을 겨뤘다. 특히 이번 김밥대회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특별상을 받은 작품은 편의점용 김밥으로 만들어져 올 하반기 전국 6600여 매장에서 판매될 계획이다. 최은용 이마트24 MD담당 상무는 “이마트24 특별상”을 직접 시상하며 “전세계적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김밥이 K-푸드의 중심에 있다”며 “김밥 상품에 힘을 주고 있는 이마트24가 세계김밥페스타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광주기독병원, 김진기관평가 '우수' 일반·위암·간암·폐암 김진은 최고 등급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4주기 병원급 이상 김진기관평가 7개 분야에서 '우수' 이상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진기관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3년 주기로 김진유형별 김진 50건 이상 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서면조사와 일부 방문조사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되며, 하위 평가분야 결과가 모두 우수인 경우 최우수 등급이 부여된다. 광주기독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7개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일반 김진과 위암, 간암, 폐암 김진 등 4개 항목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이승욱 병원장(사진)은 “최상의 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첨단 의료장비를 이용해 분야별 전문 의료진이 직접 맞춤형 김진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 조처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한국거버넌스학회, 지방시대 대전환 학술대회 '성황'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용민)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대전환'을 주제로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한원희) 글로벌창업융합관에서 17개 기관과 함께 연합총계공동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목포시, 한국지역사회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도시(학)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목포대학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전국 규모 학술대회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에 대해 이정현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목포시가 주최하는 전남 서부권 의료현실과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해 청년친화도시인증, 관광거점도시, 서남권 조산업 친환경 혁신기반 구축, 크루즈 해안대저 관광거점 등 목표의 역점 시책에 대해 분과별로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발표와 토론을 통해 목포시 미래 발전전략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이 주최하는



'섬과 육지를 잇다', '섬 문화예술 육성과 섬 정원화' 분과에서는 해상교통체계의 무인택배선, 국가해양정원과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섬 문화예술 육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지속가능 발전은 모두에게 중요한 공통의 목표다. 최근 지방의 대전환기 시기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면서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주)국민·국민산업 유통식품 회장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1000만원 기부

“환아·가족 어려움 극복하길”

유통식품(주)국민, 국민산업 회장이 최근 (사)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이사장 최영준)에 백혈병소아암 환아 돌기 1000만원 성금을 기부했다. 윤 회장은 이번 기부를 포함 5년 연속 매년 1천만원의 기부를 이어와 지금까지 전달한 총 기부금 5000만원에 달한다. 성금 기부식에는 유통식품 회장과 국민산업 손세헌 대표이사,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광주전남지회 최영준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유통식품 회장은 “백혈병소아암 환아와 그 가족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며 “소아암환자들이 하루속히 쾌차해 가족들과 함께 다시 행복한 일상을 회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 한다”고 후원 취지를 밝혔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최영준 이사장은 “윤회장님처럼 환아와 그 가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신 고마운 분들이 있어 그나마 환아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며 “고귀한 뜻 잘 전달해 환아와 그 가족들이 치료에 전념, 행복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화순경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앞장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16명 위촉

화순경찰서는 최근 안수범피 등 치안 불안요소 해소를 위해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수사파트너십 포럼 회원 16명을 선정해 범죄에 공동대응하고 안수범피를 척결해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한 화순'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위촉된 회원들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치안 이슈에 대해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치안 불안요소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용 화순경찰서장은 “더욱 공고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안전한 화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게시판

- 모집**
 - △구당침뜸 수강생=기본반 3개월(토/12회) 성인병 예방·치료, 가족주치의, 문의:뜸사랑 광주교육원 062-521-3999, 010-4642-4779.
 -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 △봉사 함께 할 광주VIP라이온스클럽 회원=심신 건강한 남·여 회원, 문의(회장) 010-3223-4311, (총무) 010-3365-0065.
 -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 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돌봄봉사자=어르신 돌봄봉사자 모집, 만 13세 이상 가능,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문의 062-232-4953.
 -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 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담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 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은세 (음력 3월 21일)

- 48년생 때가 아니니 물러서는 것도 좋을 것
- 60년생 과감하게 단행할 수 있어야겠다
- 72년생 잘 파악해 주체받지 않도록 하라
- 84년생 일을 그르치니 너무 서두르지 마라
- 96년생 말에 동요되지 말고 기다리라
- 51년생 일은 느리고 이익도 없는 날
- 63년생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마라
- 75년생 마음에 중심이 없고 흔들림이 많은 날
- 87년생 지나친 신념은 건강을 해친다
- 99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으라
- 54년생 사기 당할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라
- 66년생 즉흥적인 결정은 실패할수 있다
- 78년생 남매를 당하지 않으려면 말을 삼가라
- 90년생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57년생 재물이 따르니 기운이 가득한 날
- 69년생 의지를 관철시키기에 충분하다
- 81년생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는 날
- 93년생 성질을 무조건 죽이고 참으라
- 49년생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화를 부르리니
- 61년생 예상치 않은 곳에 돈이 나간다
- 73년생 지금이 부흥산 거레 좋은 기회
- 85년생 집안에 중요한 일에 변화가 올 것
- 97년생 금전 사정이 좋지 않게 되는 날
- 52년생 공허로운 재물을 탐내지 마십시오
- 64년생 집 나오면 귀하면 좋다
- 76년생 정성을 다하면 이루어 진다
- 88년생 원인부터 세밀하게 따져봐라 한다
- 55년생 해결될 것이니 근심하지 마라
- 67년생 너무 앞서가지 마라
- 79년생 재산에 미련을 가지지 말 것
- 91년생 친구의 교묘으로 금전 지출 많은 날
- 58년생 욕심을 버리면 번창일로에 있다
- 70년생 공정성과 투명성만이 신뢰를 얻을리라
- 82년생 대화가 부족하니 허심탄하게 토론하라
- 94년생 밖으로 나가면 좋지 않다
- 50년생 언행에 조심하라
- 62년생 앞서 갈 필요는 없으니 서두르지 마라
- 74년생 부흥산 집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 86년생 이성의 유혹을 뿌리쳐라
- 98년생 이상 문제 내일로 미루십시오
- 53년생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해 노력하라
- 65년생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마라
- 77년생 작은 소원이 이뤄질 수 있는 날
- 89년생 한 일은 많으나 성과가 없는 하루
- 56년생 좋은 기회와 오히려 주위의 도움 있다
- 68년생 중요한 약속이 깨질 수 있다
- 80년생 금전으로 중요한 일에 변화가 올 것
- 92년생 진행하는 것이 가장 시기적절하리라
- 59년생 오래 이끌어오던 일이 발전이 있을 것
- 71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 손대지 마라
- 83년생 관재에 이르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 95년생 간단하면서도 명료함이 생산적이다